

A silhouette of a cross on a rock against a sunset sky. The cross is positioned at the top left, resting on a dark rock. The sky is filled with soft, golden light from the setting sun, creating a warm and serene atmosphere. The text is overlaid on the rock and sky.

오늘의 말씀

Scripture reading

룻 3:1-9

Ruth 3:1-9



룻 3:1-9
Ruth 3:1-9

룻 3:1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애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Ru 3:1 Then Naomi her mother-in-law said
to her, "My daughter, should I not seek rest
for you, that it may be well with you?"



룻 3:1-9
Ruth 3:1-9

룻 3:2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요즈음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 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Ru 3:2 Is not Boaz our relative, with whose young women you were? See, he is winnowing barley tonight at the threshing floor.



룻 3:1-9
Ruth 3:1-9

룻 3:3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Ru 3:3 Wash therefore and anoint yourself, and put on your cloak and go down to the threshing floor, but do not make yourself known to the man until he has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룻 3:1-9
Ruth 3:1-9

룻 3:4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 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Ru 3:4 But when he lies down, observe the place
where he lies. Then go and uncover his feet and
lie down, and he will tell you what to do."



룻 3:1-9
Ruth 3:1-9

룻 3:5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Ru 3:5 And she replied, "All that you
say I will do."



룻 3:1-9
Ruth 3:1-9

룻 3:6 그는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Ru 3:6 So she went down to the
threshing floor and did just as her
mother-in-law had commanded her.



룻 3:1-9
Ruth 3:1-9

룻 3:7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난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Ru 3:7 And when Boaz had eaten and drunk, and his heart was merry, he went to lie down at the end of the heap of grain. Then she came softly and uncovered his feet and lay down.



룻 3:1-9
Ruth 3:1-9

룻 3:8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Ru 3:8 At midnight the man was startled and turned over, and behold, a woman lay at his feet!



룻 3:1-9
Ruth 3:1-9

룻 3:9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말아야 할 분이십니다."

Ru 3:9 He said, "Who are you?" And she answered,
"I am Ruth, your servant. Spread your wings over
your servant, for you are a redeemer."

설교

“기업을 무를 자”
You are a redeemer



주님 품 안에서...
누구나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삿 21:25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Jdg 21:25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룻 1:1 사사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 때에 유다 베들레헬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Ru 1:1 In the days when the judges ruled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and a man of Bethlehem in Judah went to sojourn in the country of Moab, he and his wife and his two sons.

엘리 - 나의 하나님
멜렉 - 왕

엘리멜렉 -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룻 1:6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준비를 차렸다.

Ru 1:6 Then she arose with her daughters-in-law to return from the country of Moab, for she had heard in the fields of Moab that the LORD had visited his people and given them food.



룻 1:16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겨레가 내 겨레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Ru 1:16 But Ruth said, "Do not urge me to leave you or to return from following you. For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lodge I will lodge. Your people sha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룻 1:17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Ru 1:17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will I be buried. May the LORD do so to me and more also if anything but death parts me from you."

I.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1-4절).

나오미 - 기쁨

마라 - 괴로움

룻 3:1 “애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Ru 3:1 “My daughter, should I not seek rest for you, that it may be well with you?”

룻 3:2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요즈음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 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Ru 3:2 Is not Boaz our relative, with whose young women you were? See, he is winnowing barley tonight at the threshing floor.

룻 3:3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 마당
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 채지 못하
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Ru 3:3 Wash therefore and anoint
yourself, and put on your cloak and go
down to the threshing floor, but do not
make yourself known to the man until
he has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룻 3:4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 두었다가, 다가 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Ru 3:4 But when he lies down, observe the place where he lies. Then go and uncover his feet and lie down, and he will tell you what to do."

II.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5-6절).

룻 3:5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Ru 3:5 And she replied, “All that you say I will do.”

룻 3:6 그는 타작 마당으로 내려
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
였다.

Ru 3:6 So she went down to
the threshing floor and did just
as her mother-in-law had
commanded her.

III. 하나님은 구속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7-9절).

룻 3:7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난가리 곁으로 가서 누
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Ru 3:7 And when Boaz had eaten and
drunk, and his heart was merry, he
went to lie down at the end of the
heap of grain. Then she came softly
and uncovered his feet and lay down.

룻 3:8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
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 있는 것
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Ru 3:8 At midnight the man was
startled and turned over, and
behold, a woman lay at his feet!

룻 3:9 "누구요?" 하고 물었다...

Ru 3:9 He said, "Who are you?"...

룻 3:9 ..."어른의 종 룯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Ru 3:9 ..."I am Ruth, your servant. Spread your wings over your servant, for you are a redeemer."

어떤 사람의 옷자락으로 어떤 사람
을 덮는다

Spread your wings over your
servant

기업을 무를 자

고엘(goel)

구속자

redeemer

롬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
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Rm 8:32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롬 6:23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
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Rm 6:23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